

사전발급으로 '합리적 의심'을 해소하다

1. 기업 및 제품소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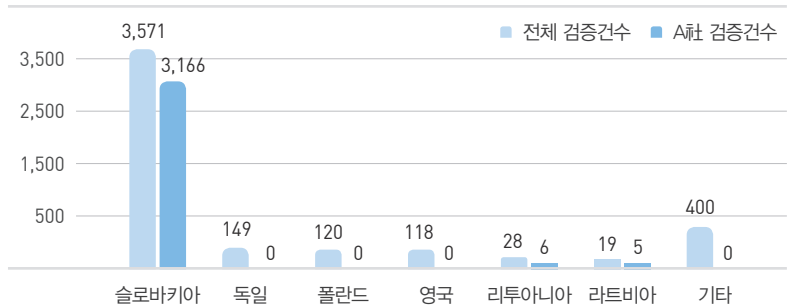
- A사는 주로 TV 모니터의 프레임, 지지대를 수출하는 업체
 - EU 수출금액 14억불(2013)에 달하며, 주요 수출국가는 슬로바키아 (51%이상), 협정관세 대상물품 수출금액은 1.8억불 수준
- 제품소개 : TV의 측면커버 사이드프레임(COVER SIDE FRAME)과 지지대



2. 장애 요소

1. FTA 특혜적용 수출물품의 특정국가(슬로바키아) 검증요청 과다

- A사의 對 슬로바키아 수출물품에 대한 검증요청 건수는 총 78회, 3,166건('12~'14.6월)으로서 EU국가 전체 검증요청건의 89%에 달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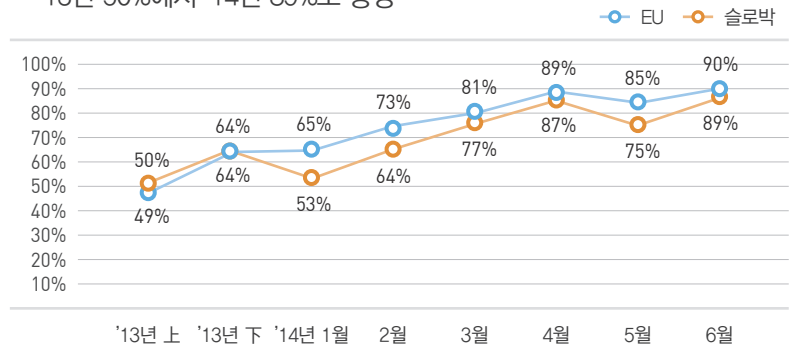
3. 극복 방안

- 수출물품에 대한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 지연으로 슬로바키아 통관 후에 FTA 협정관세를 사후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원인
 - ① A社가 수출하는 협정적용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신고서(C/O) 사전 발급율을 향상 도모
 - ② 슬로바키아 세관의 검증요청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부 차원 대응 실시

4. 활용 효과

1. 원산지 신고서 사전발급율 향상

- 對 슬로바키아 협정적용 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고서 사전발급율이 '13년 50%에서 '14년 89%로 향상



2. 슬로바키아 세관의 검증요청 감소

- 슬로바키아 세관이 A社의 협정관세 사후신청건 수품목에 대한 무차별 검증에서 신규품목에 대한 검증 요청으로 개선
 - '13년도 2,225건 ▶ '14.8월 현재 854건으로 58%로 검증요청건 감소

5. 시사점

- 원산지증명서 사전 발급의 중요성 인식 계기
- 원산지 검증 소요시간과 비용 절감으로 생산활동에 전념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됨